

현대 중국어 ‘這’의 인지적 의미 연구

정 성 임*

<目次>

I. 서론	2. 원근개념으로 판단 가능한 ‘這’
II. 지시어의 기능에 따른 분류	3. 원근개념으로 판단 불가능한 ‘這’
III. 관련성 이론에 따른 ‘這’의 발화 이해 과정	IV. ‘這’의 ‘청자 지향적’인 인지적 거리
1.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	V. 결론

I. 서론

지시 표현 중에서 지시어는 발화 현장에서 화자가 어떤 대상을 다시 언급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며 청자로 하여금 담화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시어의 이러한 기능은 세계 언어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어는 ‘이’, ‘그’, ‘저’ 세 가지가 근칭, 중칭, 원칭으로 구분되지만, 중국어는 근칭은 ‘這’, 원칭은 ‘那’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어 교재에서 ‘這’는 ‘那’와 대비되는 형태로서 ‘這’는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할 때, ‘那’는 비교적 먼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념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표현되는 경우를 설명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중어중국학전공 조교수(강의전담)

1)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9, 656쪽, 396쪽.

- (1) 我喜歡這張照片。
- (2) 這件衣服不好看, 一點都不適合你。
- (3) 只是這個同志的脾氣不好。²⁾

만약 화자 앞에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는데 (1)로 발화했다면 물리적 거리로는 ‘這’의 사용을 설명할 수 없고, (2)는 청자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화자가 발화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원근개념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3)은 현장에 없는 대상에 대해 ‘這’로 지시하였고 이 역시도 원근개념으로 적절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지시어의 기능 분류 연구는 현재 발전 단계에 놓여 있지만, 중국어의 ‘這’가 여러 종류의 대상에서 지시대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근접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와 같이 ‘這’가 가진 특성과 다르게 표현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시어의 문제는 개별 언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어 ‘이’³⁾와 중국어 ‘這’의 인지적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어의 지시어 ‘이’를 중국어에 그대로 대입하여 사용하거나, 중국어 ‘這’를 한국어 ‘이’로 옮기는 현상까지 초래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첫째, 그동안 지시어 ‘這’에 대해 기능 분류에 국한된 연구 또는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연구에서 벗어나 원근개념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판단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여 지시어 표현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Sperber & Wilson (1986)의 관련성 이론으로 ‘這’의 특성 또는 발화 이해 과정을 원근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통합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문은 출처를 표시하며, 표시하지 않은 예문은 北京大學 中國語言學研究中心(CCL)에서 발췌한다. 또한 통용되는 문장은 필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3) 중국어 ‘這’에 해당하는 한국어로는 ‘이’, ‘이것’ 등이 있고, ‘那’에 해당하는 것은 ‘그’, ‘그것’, ‘저’, ‘저것’ 등이 있지만, 논의의 편의상 ‘這’는 ‘이’를 대표로, ‘那’는 ‘그’를 대표로 하여 서술한다.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둘째, 동일한 언어 환경에서 한국어 '이'와 중국어 '這'의 사용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여 양국 언어의 지시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시어⁴⁾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화자이며, 그가 하는 말이 청자에게 들리게 된다. 그때 화자가 어떤 내용을 언급하게 되고, 청자는 그 언급된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언급된 것을 지시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된 말을 지시어라고 일컬을 수 있다.⁵⁾ 이러한 지시와 가장 관련이 큰 것은 지시대명사로 한국어에서는 '이, 그, 저'가 있을 수 있다.

지시어의 기능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용어상의 차이가 있지만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⁶⁾ '현장지시'는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실을 지시하는 경우이며, '개념지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문맥지시'는 담화나 텍스트에서 두 개의 언어 표현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

4) 지시어는 '실존 세계'나 '기억된 세계' 또는 '발화나 담화가 형성해 놓은 텍스트 세계'의 것들을 언어적 요소로 표현하는 것이다. 유경민, <지시어 '저'의 제한적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제16권, 2005, 180쪽.

5) 박영환, 《지시어의 의미 기능》, 한남대학교출판부, 1991. 8쪽.

6) 한국어 연구에서 장경희(1980)는 '실재적 지시(real deixis)', '상념적 지시(conceptual deixis)', '기호적 지시(signal deixis)', '전술언급(anaphora)'으로 구분하였다. 김일웅(1982)은 '현장지시', '개념지시', '조용지시'로 설명하였다. 박영환(1991)은 크게 '지시 기능'과 '대용 기능'으로 나누며 '지시 기능'을 다시 '현장 지시 기능'과 '개념 지시' 기능으로 구분하고, '대용 기능'은 '장형 대용'과 '단형 대용'으로 구분하였다. 유경민(2005)이나 전기정(2008) 등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시어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 쓰이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용어로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를 채택하였다. 본고에서도 용어의 선택에 있어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를 따른다.

할 경우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지시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장지시’는 ‘시간지시’, ‘공간지시’, ‘사물(사람)지시’로 구분된다. ‘개념지시’는 ‘추상지시’와 ‘상징지시’⁷⁾, ‘문맥지시’는 ‘성분지시’와 ‘문장지시’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⁸⁾

지시 기능	현장지시	시간지시
		공간지시
		사물(사람)지시
	개념지시	추상지시
		상징지시
	문맥지시	성분지시
문장지시		

중국어는 ‘這’와 ‘那’를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어 점차 인지화용, 담화측면의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呂叔湘(1985)은 《近代漢語指代詞》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這’와 ‘那’의 기능을 ‘指示’, ‘稱代’, ‘承接’로 구분했다. ‘這’와 ‘那’의 뒤에 명사가 있다면 ‘지시 기능’이라고 여기고, 명사가 없거나 ‘수사+些/個’와 같은 형식으로 출현하면 ‘대용⁹⁾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¹⁰⁾ 그러나 ‘대용’에는 당연히 지시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면서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這’와 ‘那’의 기능을 ‘指示’, ‘區別’, ‘替代’

7) 박영환(1991)은 이 같은 경우를 각각 ‘추상지시’, ‘구상지시’라고 하였다. 박영환, 《지시어의 의미 기능》, 한남대학교출판부, 1991, 51쪽.
 8) ‘개념지시’와 ‘문맥지시’는 그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개념지시’를 ‘추상지시’와 ‘상징지시’, ‘문맥지시’는 ‘성분지시’와 ‘문장지시’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9) ‘조용(anaphora)’과 ‘대용(substitution)’이라는 용어는 범주에 있어서 학자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 ‘대용’, ‘지시’의 용어에 대한 논란을 접어두고 ‘대용’이라 기술한다.
 10) 지시어는 명사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지시’와 ‘대용’의 기능을 모두 가지므로 형식적 분류로 지시어를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로 설명한다.¹¹⁾ 徐默凡(2001)은 呂叔湘(1985)의 연구를 토대로 '指示', '稱代', '承接', '區別'로 설명하며 '指示', '稱代'는 어법으로 '承接', '區別'는 화용적 의미로 구분하였다. 반면 方梅(2005)는 '這'와 '那'의 기능을 담화 측면에서 구분하였는데, '情境用(situational use)', '認同用(recognitional use)', '示踪用(tracking use)', '語篇用(textual use)'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¹²⁾ '情境用'은 한국어에서의 현장지시, '認同用'은 개념지시, '示踪用'과 '語篇用'은 문맥지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³⁾

이처럼 지시어는 공간에서의 물리적 거리로 표현하는 경우와 문맥 또는 담화 상에서 대상을 재지시하는 경우 등의 기능 분류로 연구됐다. 또한, 지시어의 기능을 화자와 청자의 사전 지식으로 판단하거나(민경모 2008) 지시대상의 심리적 거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김일웅 1982, 이승후 1993¹⁴⁾)들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지시어 연구는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 각각의 기능에서 개별적인 해석만이 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관련성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크게 원근개념으로 판단 가능한 '這'에 속하는 기능과 원근개념으로 판단 불가능한 '這'에 속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這'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1) 呂叔湘·江藍生, 《近代漢語指示詞》, 上海: 學林出版社, 1985.

12) '情境用'은 지시대상이 대화 현장에 있거나 대화에서 묘사하는 사건의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認同用'은 대상이 앞의 문맥이나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간의 공통된 지식 속에 존재하는 것을 지시한다. '示踪用'은 앞선 문맥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을 재지시하고, '語篇用'은 앞선 문맥의 진술이나 앞에서 말한 사건을 지시한다. 方梅, <指示詞“這”和“那”在北京話中的語法化>, 《中國語文》第4期, 2002.

13) 기능에 따른 예는 제3장에서 다시 살펴하기로 한다.

14) 이승후(1993)는 원근개념은 절대적인 물리적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 화맥에서의 상대적인 거리에 대해 화자와 청자의 상황 인식에 의해 결정되며, 이 경우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멀고 가까움의 거리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설명은 지시어를 심리적 표현으로 여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관련성 이론에 따른 ‘這’의 발화 이해 과정

1.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

Sperber & Wilson(1986)¹⁵⁾은 격률을 기준으로 함축을 설명한 Grice 이론¹⁶⁾에 반론하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Grice의 대화격률을 그대로 따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Sperber & Wilson(1986)는 Grice와는 다르게 발화의 해석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제약성을 가진 원리로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주장하였다.

① 관련성의 인지적 원리¹⁷⁾:

인간의 인지는 관련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② 관련성의 의사소통적 원리:

모든 명시적인 의사소통은 행위는 나름대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일어난다.

③ 관련성의 결정:

a.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맥락 효과가 크면 클수록 관련성은 더 커진다.

b.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처리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련성은 커

15) Sperber, D. and Wilson, D. *Relevance*. Oxford: Blackwell, 1986.

16) Grice(1975)는 대화협력원칙을 제시하며 대화협력원칙은 우리가 대화에 참여할 때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17) 관련성의 원리는 화자가 청자에게 가능한 최대로 관련된 명제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청자는 이것을 인지하고 화자가 지닌 맥락함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화함축의 의미를 추론한다. 얼핏 보기에는 어떤 발화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지라도 그 발화가 청자에게 관련성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관련성 있는 발화를 하여 대화함축의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청자는 맥락함축을 근거로 발화의 함축의 의미를 추론한다. 안병철, <영어의 대화함축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63쪽.

진다.¹⁸⁾

맥락적 효과란 한 개인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의 세계표상을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언술의 기능을 뜻한다.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세계표상(representation of the world)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가 주는 영향(효과)을 추론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별한다¹⁹⁾

- ① 한 개인이 종래 지니고 있던 상정내용²⁰⁾이 새 정보로 인해 폐기
- ② 종래 지니고 있던 상정내용이 새 정보로 인해 더 강화되고 합리화
- ③ 새로운 맥락적 함축의미가 생성

청자는 새로이 접하게 되는 새 정보와 그 맥락을 이루고 있는 구정보들을 통합해서 적합 타당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복원할 수도, 현재 지니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에 대한 더 나은 증거를 얻어 기존의 신념이나 생각을 강화할 수도 있다.²¹⁾ 관련성 이론은 낮은 처리 노력으로 높은 맥락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발화가 관련성이 높은 발화이며, 처리 노력이 많이 드는 경우는 관련성이 낮은 발화라고 여긴다.

Sperber & Wilson(1986)의 관련성 이론은 관련성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에 대한 기본 가정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다. 관련성 이론에 따라 언어 표현이 갖는 의미는 개념적 정보(conceptual information)를 부호화하는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²²⁾와 어떤 개념도 부여하지

18) 이성범,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2002, 254쪽.

19) 김태옥·이현호 역,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1994, 363쪽.

20) 상정내용(assumptions)이란 개인에 의해서 실제세계의 표상으로 취급되는 사고(허구, 욕망, 또는 표상과 대립되는)를 말한다.

21) 김태옥·이현호 역,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1994, 363-364쪽.

22) 전통적인 언어 이론에서는 감정적 의미에 대하여 감정이나 문맥적 요소를 배제한 언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적 의미(conceptual meaning)' 또는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라고 한다. 임지룡 외 역,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2004, 187쪽.

않으면서 화용적 추론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절차적 (procedural meaning) 의미’로 의미의 구분이 이루어진다.²³⁾ 또한 Sperber & Wilson(1998)은 ‘개념적 의미’를 갖는 언어 표현에 완전한 개념(full-fledged concept)을 부호화하는 것과 완전한 개념을 부호화하기 위해서 맥락에 의존해야하는 ‘가개념(pro-concept)’이라는 것을 구분한다.²⁴⁾

Sperber & Wilson(1993)은 발화 맥락을 고려하여 지시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대명사가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제안하였고, Scott(2009)은 이러한 이분법을 토대로 영어의 ‘this’는 지시대상이 ‘that’ 보다 가깝다는 것을 표시하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²⁵⁾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정보로 공간적 거리로 알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인지(2013)는 ‘this’가 의미하는 절차적 정보를 “화자에게만 명시적이었던 대상들의 집합에서 화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을 찾아라.”²⁶⁾고 정의했다.

본고는 이 견해를 받아들여 ‘這’는 화자가 어떤 의도로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말하고 싶고, 청자에게도 화자 자신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찾아 집중하도록 한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본고는 최인지(2013)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절차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자 한다.

화자에게만 명시적이었던 대상들의 집합에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찾아라.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 청자는 집중하게 되며 그 대상에 대해 추론하게 된다.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직시 가능한 대상 뿐만 아니라 화자의 관념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눈앞에

23) 최인지, <근칭 지시사의 개념적·절차적 의미 연구>, 《언어학》 제21권, 2013, 164쪽.

24) 최인지(2013), 같은 논문, 169쪽. 최인지(2013)는 지시어 ‘this’를 절차적 정보와 원근이라는 가개념적 정보를 부호화하는 언어 형태로 간주한다.

25) 최인지(2013), 같은 논문, 156쪽.

26) 같은 논문, 167쪽.

없는 대상이나 근접하지 않는 대상에 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어의 '這'가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찾게 하는 '절차적 의미'와 근접성이라는 '가개념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여 '這'의 발화 이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원근개념으로 판단 가능한 '這'

대화의 현장에 어떤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한국어에서 지시어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그림은 내가 가지고 가고, 그 그림은 네가 가지고 가. 저 그림은 팔자.

상황의 전제 조건이 없다면 물리적 거리인 원근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는 화자의 가까이 있는 그림이고, '그'는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깝게 위치한 그림이며, '저'는 화자에게 멀리 위치함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這'와 '那'²⁷⁾의 사용 환경은 다음과 같다.

(5) 我要這個, 還要那個。(北京大學漢語口語1 2014:89)

(5)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와 가까운 지시대상은 '這', 가깝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那'로 지시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관련성 이론을 통해 살펴보자.

(6) 這窗戶誰開開了?

27) 지시어가 명사를 수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대명사와 관형사로 구분하는 한국어와 달리 관형사를 품사로 두지 않는 중국어에서 지시어는 '代詞' 중 '指示代詞'에 속한다.

(6)과 같은 발화에서 ‘這’는 현장에서 사물을 지시하고 있다. 관련성 이론을 통해 보자면 청자는 화자가 관련성 있는 발화를 할 것이라 믿으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 효과를 얻으려 노력한다. 청자는 ‘這’가 가진 절차적 정보에 따라서 ‘這’가 발화된 이후에 발화 맥락에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확인하려 할 것이고, 청자는 ‘這’의 가 개념적 정보로 그 근접성은 맥락을 통해 추론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窗戶’의 개념적 정보에 따라 ‘這’가 지시하는 것이 ‘창문’에 속하는 것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화자에게 근접한 거리에 열려있는 창문이 하나라면 이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這窗戶’는 열려 있는 그 ‘창문’이다.

(7) 您瞧吧, 先生, 這面包是多麼好吃呢!

화자가 자신 앞에 있는 ‘빵’을 가리키며 (7)을 발화했다고 한다면 이때 ‘這’는 원근개념으로 판단이 가능한 대상이다. ‘這’의 가개념 정보를 통해 근접성이 맥락에서 구체화되고, ‘面包’의 개념적 정보로 그 대상은 ‘面包’에 해당하는 것으로 좁혀진다. 또한, 절차적 정보로 청자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찾으며 발화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발화 이해 과정으로 인해 청자는 화자가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원근개념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 쓰인 ‘這’는 어떤 상황이며 어떤 발화 과정으로 이해되는지 살펴보자.

3. ‘원근개념으로 판단 불가능한 ‘這’

1) 현장지시

물리적인 원근개념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這’는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에서 모두 나타난다. 앞서 사용한 예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這窗戶誰開開了?

(7') 您瞧吧, 先生, 這面包是多麼好吃呢!

(6')에서 만약 열려있는 '창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가정을 해보자. 이것은 '這'의 원근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자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這窗戶'가 지시하는 대상을 확인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화자는 '這'를 발화함과 동시에 손짓이나 눈짓을 동반하면서, '화자에게만 명시적이었던 대상들의 집합에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찾아라'라는 절차적 정보로 지시대상에 대해 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해준다. '這'로 지시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화자의 의도적 관심이 필요하며 화자가 의도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는 청자의 추론이 필요하다.

(7')에서 화자와 청자가 '빵가게'에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빵가게'에 많은 종류의 '빵'이 있고 화자 앞에는 여러 종류의 '빵'이 놓여 있다. 화자는 그중 어떤 '빵'에 대해 말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러나 청자는 화자가 발화한 언어적 정보로 '面包'의 개념적 의미에 해당하는 많은 종류의 '빵' 중 화자가 '這'라고 지시하는 '빵'을 추론하기 힘들다. 화자는 이때 자신이 의도한 지시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손짓, 눈짓으로 절차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자는 '빵'이라는 개념적 정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대상 즉, '빵가게'에 '빵' 중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지시어의 선택은 화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발화 상황이나 맥락에 구체화된다. 화자는 발화 이전에는 화자에게만 명시적이었던 지시대상에 대해 의도적 관심을 표하면서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這'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대상 중에서 한 가지에 주의를 주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원근개념과는 달리 지시어 '這'가 화자에게 가깝지 않은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치과 의사가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치아를 치료하

려고 손대면서 (8)과 같이 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8) 是這顆牙嗎?

원근개념에 따르자면 의사는 ‘這’보다 ‘那’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치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입장에 서서 ‘這’로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나 중국어도 마찬가지이다. 환자는 ‘這’의 절차적 의미로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은 의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건드리고 있는 자신의 치아라고 추론하게 된다. 또한 ‘這’가 나타내는 개념적 정보와 ‘牙’의 개념적 의미를 통해 맥락에서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중 가장 가까운 대상을 추론하게 된다. 의사의 ‘치아’가 아니므로 의사에게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고 여겨져 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의사가 현재 직시하고 있는 ‘치아’ 중 가장 근접한 것은 의사가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그 ‘치아’임을 도출하게 된다. 청자는 관련성 이론에 따라 의사가 최적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발화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치아’에 관해 물으려는 의도를 파악한다.

(9) 這件怎麼也得上百吧? (沈建華 2003:2)

화자가 청자가 걸친 ‘옷’을 쳐다보며 (9)와 같이 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這’가 가리키는 ‘옷’은 화자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청자가 입고 있는 ‘옷’이다. 그 ‘옷’은 청자에게 가까우므로 물리적 차원으로 말하자면 ‘這’보다 ‘那’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這’를 사용하여 발화하였다. 청자는 ‘這’의 절차적 정보를 통해 발화시에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특정한 대상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자의 ‘옷’을 쳐다보는 화자의 눈짓이 포함되며 발화 맥락에서 가장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지시대상은 청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여기게 된다. 또한, 화자가 발화한 ‘옷’이라는 개념적 정보로 ‘옷’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청자는 이러한 절차적, 개념적 정보로 인해 화자가 지시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대상은 자신의 '옷'이라는 '가개념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 경우 공간적 원근의 차이가 지시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지시어의 선택은 화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발화 상황이나 맥락에 구체화되는 것이다. 화자는 화자에게만 활성화된 표상을 발화하여 청자에게도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這'로 지시하는 것이다.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와 관계가 긴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물리적 거리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근접하게 여기며 '這'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시어의 개념을 '심리적 근칭'이라 설명하고자 한다. 화자에게 가깝지 않은 대상이라도 화자가 직시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고자 할 때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這', 심리적으로 비교적 가깝지 않음을 말할 때는 '那'를 사용한다. 화자가 어떤 지시어를 선택하는가는 이처럼 발화 상황이나 발화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 개념지시

개념지시는 현장에 실재하는 사물도 아니고, 언어문맥에도 없는 것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념상에서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과 같다.

- (10) 이 슬픈 마음을 알아주세요.
- (11) 이 볼펜뚜껑을 어디에 두었니?

(10)의 '이'가 지시하는 '슬픈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추상지시'이며 (11)의 '이'가 가리키는 '볼펜뚜껑'은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상징지시'이다. 중국어에서 '추상지시'와 '상징지시'는 다음과 같다.

(12) 讓我們記住這痛苦!

(13) 這種女人太不像話了, 睜著眼說瞎話, 真是只認錢不認人。

(沈建華 2003:22)

(12)에서 ‘這’는 추상적 지시이며 ‘這’를 발화하기 이전에는 화자가 말하는 심적 표상이 청자에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這’가 발화된 후에는 ‘這’가 가리키는 것이 화자의 심리 상태임을 알게 된다. ‘這’로 발화하기 전에는 화자에게만 심적 표상이 현저하고 청자에게는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이다. 즉, 청자는 화자의 심리적 상황을 추론하기 위해 맥락에서 가장 관련성 있는 정보를 찾는다. 청자에게 명시되지 않고 화자에게만 명시되었던 화자의 심리적 상태는 발화가 끝난 후에 청자와 화자 모두 명시적인 것이 된다. 이로 인해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관념에 대해 청자와 공유하게 되어 화자가 의도한 심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맥락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13)은 실재하는 인물이지만 현장에 있지 않은 화자의 관념에서 떠올리는 상징적인 지시대상이다. 화자는 현장에는 없지만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고 ‘這種女人’이라 발화하였다. 화자는 청자가 화자 자신이 의도적으로 ‘這’를 사용하여 지시하는 인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궁금증을 가지며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의도로 현장에 없는 인물을 ‘這’로 지시한다. 청자는 ‘這’의 절차적 의미로 맥락 속에서 화자와 청자에게 명시적인 대상을 찾게 된다. 그러나 맥락에서 근접성에 따른 여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這’의 개념적 의미는 필요하지 않다. 단지 화자의 발화에서 ‘這種女人’이 처음 출현했고 ‘이 여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는 화자의 마음을 배경으로 하면 ‘這種女人’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중요도가 큰 역할임을 파악하게 된다. 화자가 ‘這種女人’이라고 발화한 후에 청자는 최적의 관련성을 찾으려 할 것이고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추론을 위한 처리 노력이 더 필요하므로 화자는 이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4) B: 怎麼啦, 老張? 是不是跟誰吵架了? 看把你氣的。

A: 咳, 別提了。我前天在路邊的小店買了個收音機, 剛聽了一天就沒聲兒了, 這不, 我就去了, 想換一個。

A: 沒換成?

B: 沒換成不說, 還受了一肚子氣。那個女的真夠可以的, 明明就是她賣給我的, 可他一口咬定壓根兒不是他們店賣的……(중략) (沈建華 2003:22)

화자 A는 그저께 길가의 상점에서 라디오를 구매하였고 라디오를 구매한 상점 주인에 대해 청자에게 말하고 있다. 만약 화자가 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를 말하려 한다면 '這' 대신 '有個女人'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화자가 '有個女人'으로 발화했다면 '這種女人'은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여자일 리 없고, 청자는 '這種女人'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필요도 없다. 화자가 '這'를 사용하여 발화한 것은 청자가 화자가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발화에서 중요한 역할이며, 이 대상에 대해 청자가 추론해주길 바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문맥지시

'문맥지시' 기능을 갖는 지시어 '這'는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앞선 문맥에서 출현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성분지시'와 문장 또는 사건을 지시하는 '문장지시' 기능이다. 다음 박영환(1993)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²⁸⁾

(15) 매화를 잘 아시지요? 이 꽃은 향기가 독특합니다.

(16) 인간의 생명의 신비는 형언하기 어렵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²⁹⁾

28) 박영환, 《지시어의 의미 기능》, 한남대학교출판부, 1991, 48쪽.

29) 박영환(1993)은 이 예문에서 '이'가 인간의 생명이 신비롭다는 것을 대응하는 지, 인간의 생명의 신비가 형언하기 어렵다는 것을 대응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은 접고 '이'가 선행문의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나 사건을 지시한다는 사실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영환, 《지시어의 의미 기능》, 한남대학교출판부, 1991, 48쪽.

(15)의 ‘이’는 매화를 대응하는 표현이며 (16)의 ‘이’는 앞선 선행문을 대응하고 있다. 다음 중국어에서 ‘문맥지시’ 기능을 살펴보자.

(17) 俱樂部這東西以前沒搞過, 現在有人搞, 是件好事。

(18) 教育是什麼? 這是教育學中所要研究的一個重要理論問題。

(17)의 ‘這’는 ‘俱樂部’를 지시하는 ‘성분지시’로 청자는 ‘這’의 가개념적 의미로 발화 내에서 ‘這’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되며, 발화 후에 청자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을 찾게 된다. (18)의 ‘這’는 ‘教育是什麼?’를 지시하는 ‘문장지시’이다. ‘這’의 절차적 의미에 따라 발화 이후에 청자도 화자에게 명시적인 대상을 찾고, 가개념적 의미를 통해 ‘這’가 가리키는 대상이 ‘這’가 쓰인 문맥 속에서 근접하게 위치한 것이라 추론한다. 화자는 말하고자 하는 ‘教育是什麼?’를 ‘심리적 근칭’으로 여기고 현저성을 나타내기 위해 ‘這’를 사용한다.

(19) 張藝謀看見這家旅館的小賣部裏出售鳳尾魚罐頭, 他奶奶特別喜歡吃這/那東西, 就買了兩聽。

(20) 我是真想去, 可這/那不是我一個說了算的事呀。(沈建華 200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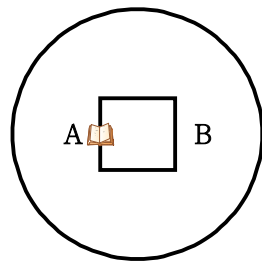
(19)의 ‘這’는 ‘성분지시’로 ‘鳳尾魚罐頭’를 가리키고, (20)의 ‘這’는 ‘문장지시’로 ‘我是真想去’를 가리킨다. 물론 (19)와 (20)에서는 지시어 ‘那’로 지시하여도 화자가 의도하여 지시하고 있는 대상을 청자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這’보다 인지적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這’와 같은 맥락적 효과는 얻지 못한다.

IV. ‘這’의 ‘청자 지향적’인 인지적 거리

현대 중국어의 지시어를 주제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바로 ‘這’와 ‘那’

의 비대칭 문제이다. 《現代漢語頻率詞典》(1986)에서 근칭대사는 16,645회, 원칭대사는 6,287회로 근칭대사의 점유율이 73%, 원칭이 27%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徐丹(1988)은 ‘한자통계빈도표’에서 ‘這’는 10번째 상용자로 138,426회 출현하고, ‘那’는 182번째 상용자로 28,882회 출현한다고 밝혔다. 梁敬美(2002) 역시 ‘這’의 사용이 ‘那’의 두 배임 언급하였다.

중국어 내에서 ‘這’와 ‘那’의 사용상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국 언어에서도 지시어 출현 빈도가 달리 나타난다. ‘這’의 출현빈도가 높은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이’보다는 ‘그’가 더 많이 사용된다. 박병선(2004)은 ‘550만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 ‘그’가 총 46,232회 출현하여 빈도수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³⁰⁾ 반면 ‘이’는 31,291회, ‘저’는 2,441회 출현함을 조사했다. 이처럼 중국어에서 ‘這’, 한국어에서는 ‘그’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지시어의 일대일 대응 교육은 적합하지 않다. 분명 중국에서 ‘這’가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존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한국인이 중국어의 지시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다음 그림과 함께 예문을 살펴보자.



(그림 1)

30) 박병선(2004:64)은 문화관광부 주관 ‘21세기 세종 계획·국어 기초자료 구축 분과’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구축한 말뭉치이다. 박병선, <한국어 지시어 관형사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과학》 제28권, 2004, 64쪽.

- (21) A: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B: 그것은 중국어책입니다.

(그림 1)과 같이 A와 B 두 사람이 동일한 공간에 인접하게 있는 경우 A가 ‘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A가 질문할 때 ‘책’이 화자 자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지시한다. B가 대답할 때는 ‘책’이 A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로 지시한다. 즉, 한국어는 A나 B가 동일한 공간에 인접하게 위치하고 A나 B 한쪽이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어는 소유하고 있는 쪽이 ‘이’, 그렇지 않은 쪽은 ‘그’가 선호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초급 단계의 중국어 교재에서 자주 출현하는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22) A: 這是什麼書?
B: 這是中文書。³¹⁾

(2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쪽도 ‘這’가 선호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존과 같은 잣대의 원근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예문을 통해 지시어의 사용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인지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화자가 지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감정을 대입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청자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³²⁾ 즉, A가 ‘這’로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B도 ‘這’를 사용하여 대답하며 ‘심리적 근칭’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화자는 직

31) 맹주억 외, 《베이직 중국어》, 동양북스, 2013, 114쪽.

楊寄洲, 《北京語言漢語教程 入門》, 商務印書館, 2007, 57쪽.

32) 반면 전기정(2008:293)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언급하길, 중국어는 ‘자아 중심적’이어서 ‘這’의 출현 빈도가 높고, 한국어는 ‘타자 중심적’이어서 ‘그’의 출현 빈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한 ‘자아 중심적’은 본 연구에 말하는 ‘화자 지향적’이고, ‘타자 중심적’은 ‘청자 지향적’에 속한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와는 반대로 바라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시하고 주의하는 것을 ‘這’로 묻고, 청자는 상대의 심리적 가까움에 개입하여 ‘這’로 대답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어는 지시대상을 소유하거나 직시하고 있는 사람 A가 ‘이’로 물으면 B는 물리적 거리가 근접하지 않는 것을 찾아 ‘그’로 대답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어는 한국어에 비해 원근 개념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이 출현한다. 중국어 예문 (22B)는 B가 ‘청자 지향적’인 인지적 거리를 선호하여 A의 입장에서 사용한 ‘這’를 그대로 받아서 지시하고, 한국어 예문 (21B)는 ‘화자 지향적’인 인지적 거리를 선호하여 화자 자신의 입장에서 ‘그’로 지시한다.

《北京語言漢語教程》 입문편(2009)에서 발췌한 예문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자.³³⁾

(23) A: 先生, 這些黑的是什麼東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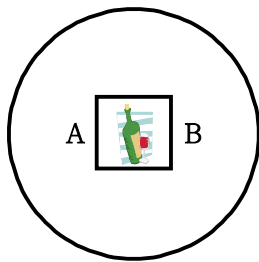
B: 這是一些藥。

A: 什麼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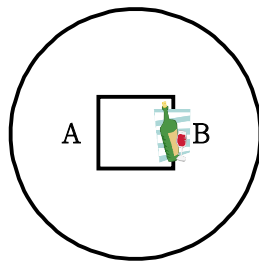
B: 中藥。

A: 這是不是藥?

B: 這不是藥, 這是酒。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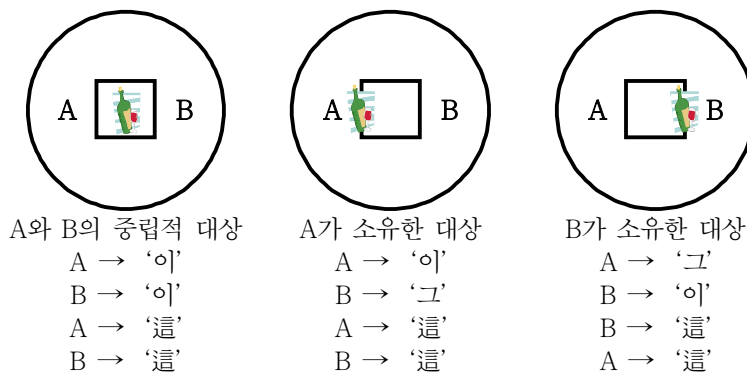
(그림 3)

(23)의 예문은 (그림 2)에서 보듯 공무원이 세관을 통과하려는 사람에게

33) 楊寄洲, 《北京語言漢語教程 入門》, 商務印書館, 2007, 160쪽.

물건의 용도를 묻는 상황이다. 이때 A의 공무원은 청자와 중립적인 시점의 가방 안의 물건을 가리키며 ‘先生, 這些黑的是什麼東西?’로 ‘這’를 사용하여 지시하였고, B 역시 ‘這是一些藥。’로 ‘這’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B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A는 ‘這’를 사용하여 묻고 있는데, 한국어의 지시어 사용 관점에서 보자면 B가 담화 현장에서 B에게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술’을 지시하기 위해 ‘這’를 사용하고, A는 A에게서는 떨어진 ‘술’이기 때문에 ‘那’의 사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어 교재의 대부분은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공간 안에 인접하게 위치할 때,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這’로 지시하고 있다. 상대가 지시하고 주의하는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묻거나 답하면서 심리적 가까움에 개입하여 ‘청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這’로 지시하는 것이다. A의 발화를 들은 B는 절차적 의미로 A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찾으며,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술’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這’가 나타내는 개념적 의미를 통해 맥락에서 A에게서 가장 가까운 대상을 추론하게 되는데 A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A는 B의 발화가 최적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발화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A는 B의 의도를 파악하여 맥락에서 그 근접성을 찾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 ‘이’와 중국어 ‘這’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V. 결 론

그동안 물리적인 원근개념의 지시어 '這'를 설명해왔으나 이러한 개념은 원근거리로 판단 불가능한 경우를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없었다. 여러 종류의 대상에서 지시대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화자에게 근접하지 않은 경우, 발화시에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 또한 그동안 지시어의 연구는 각 기능에 따른 개별적 해석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시어 '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고는 Sperber & Wilson(1986)의 관련성 이론을 통해 '這'의 발화 이해 과정을 설명하고 기능에 따른 해석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첫째, 청자는 화자가 발화한 '這'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화자에게만 명시적인 대상의 집합에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찾게 되며, '가개념적 의미'로 발화 맥락에서 근접성을 찾는다. 이 두 가지 정보로 인해 청자는 맥락에서 '這'가 지시하는 가장 두드러진 대상을 찾게 된다. 이러한 설명으로 원근개념으로 판단 가능한 '這'와 판단 불가능한 '這'에 속하는 기능을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는 담화 참여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인접하게 위치할 때 지시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사용하여 지시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중국어는 이 경우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這',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這'를 사용하여 지시한다. 본고는 중국어 '這'가 한국어의 '이'에 비해 상대의 심리적 가까움에 개입하여 '청자 지향적'인 인지적 거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원칭을 나타내는 지시어 '那'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 연구가 중국어의 지시어 교학 방면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한다.

<References>

1. An Byung-chol, "A study on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English", A doctoral dissertation of Jeonju University, 1998.
2. Beijing Yüyan Xueyuan Jiaoxue Yanjiusuo, *Xiandai Hanyü Pinlü Cidian*, 1986.
3. Choi In-ji, "An Analysis of the Meaning and the Uses of Demonstratives 'This' and 'That'",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 2012.
4. Choi In-ji, "A Study on the Conceptual and Procedural Meanings of Proximal Demonstrativ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 2013.
5. Dai Guifu·Liu Lixin·Li Haiyan, *Beijing Daxue Hanyu Kouyu 1*, Dongyang books, 2014.
6. Fang Mei, "Zhishici 'Zhe' he 'Na' Zai Beijinghua Zhong de Yufahua", *Zhongguo Yuyan* 4, 2002.
7. He Ziran, *Yüyong Sanlun : Guanlianlun·Shunyinglun·Moyinlun*, Shanghai Jiaoyu Publishing Company, 2007.
8. Hong Jin-ok, "On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 and Relevance Theory", *Donga English literatur* 12, 1996.
9. Grice,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and Moygan(eds.), *Syntax and Semantics* 3, 1975.
10. Jang Gyeong-hui, "Semantic Analysis of Korean Deictic Terms 'I', 'Gu', 'Ce'", *Language Research* 16, 1980.
11. Jeon Gi-jeong, "A Comparative Study on Referentiality of "I", "Gu", and "Jeo" in Korean and 'Zhe' and 'Na'", in *Mandarin Chinese* 49, 2008.

12. Jung Hui-ja, *Discourse and Inference*, Hankook Publishing Company, 2004.
13. Kang Mi-kyung, "Relevance Theory in Communication and the Understanding Utteranc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15, 1999.
14. Kim Tae-ok·Lee Hyeon-ho, *cognitive pragmatics*, Hanshin Publishing Company, 1994.
15. Kim Il-ung, "A Study on the deixis in Korean and Semantic Analysis of Korean Deictic Terms 'I', 'Gu', 'Ce'", *Hanguel* 178, 1982.
16. Lee Seong-beom, *pragmatics of Reasoning*, Hankook Publishing Company, 2002.
17. Lü Shuxiang·Jiang Lansheng, *Jindai Hanyu Zhishici*, Shanghai Xuelin Publishing Company, 1985.
18. Lü Shuxiang, *Xiandai Hanyu Babaici*, The Commercial Press, 1999.
19. Liang Jingmei, "'Zhe-', 'Na-'de Yuyong ji Huayu Gongneng Yanjiu", A doctoral dissertation of Zhongguo Shekeyuan Yanjiushengyuan, 2002.
20. Lym Ji-ryong, *An Encyclopedic Dictionary of Cognitive Linguistics*, Hankook Publishing Company, 2004.
21. Meng Jue-ok, *Basic Chinese*, Dongyang Books, 2013.
22. Park Byeong-Seon, "A Study on Korean Determiners and the Aspects of their Chinese Counterparts",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28, 2004.
23. Park Yong-Hwan, *A Study on the deixis in Korean*, Hannan University publishing, 1991.
24. Scott, K, "A procedural analysis of 'This' and 'That'",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1, 2009.
25. Sperber, D and Wilson, D, *Relevance*. Oxford: Blackwell, 1986.

26. Shen Jianhua, *Hanyu Kouyu Xiguan Yongyu Jiaocheng*, Beijing Yuyan University Publishing Company, 2003.
27. Wilson, D and Sperber, D, "Linguistic form and relevance". *Lingua* 90, 1993.
28. Xü Dan, "Qiantan 'Zhe', 'na'de Buduichengxing", *Chinese language* 2, 1998.
29. Yang Jizhou, *Beijing Yuyan Hanyu Jiaocheng Rumen*, Shangwu Publishing Company, 2007.
30. Yu Gyeong-min, "A Diachronic Study of the Korean Demonstrative 'Jeo'", *Korean Semantics* 16, 2005.

<참고문헌>

1. 안병철, <영어의 대화함축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 編著, 《現代漢語頻率詞典》, 1986.
3. 최인지, <지시어 'this'와 'that'의 의미와 용법 분석>, 《영어학》 제12권, 2012.
4. 최인지, <근칭 지시사의 개념적·절차적 의미 연구>, 《언어학》 제21권, 2013.
5. 戴桂芙·劉立新·李海燕, 《北京大學漢語口語1》, 동양북스, 2014.
6. 方梅, <指示詞“這”和“那”在北京話中的語法化>, 《中國語文》 第4期, 2002.
7. 何自然, 《語用三論：關聯論·順應論·模因論》, 上海教育出版社, 2007.
8. 홍진옥, <대화함축의 관점에서 본 관련성이론>, 《동아영어영문학》 제12집, 1996.
9. 그라이스(Grice), <논리와 담화>, 《구문론과 의미론》 제3권, 1975.

10. 장경희,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제16권, 1980.
11. 전기정, <한국어 '이, 그, 저'와 중국어 '這, 那'의 지시 관계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제49호, 2008.
12. 정희자,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2004.
13. 강미경, <대화 관련성 이론과 발화의 이해>, 《언어연구》 제15권, 1999.
14. 김태옥·이현호 역,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1994.
15. 김일웅,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제178호, 1982.
16. 이성범,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2002.
17. 呂叔湘·江藍生, 《近代漢語指示詞》, 上海: 學林出版社, 1985.
18.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9.
19. 梁敬美, <“這-”、“那-”的語用及話語功能研究>, 中國社科院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 2002.
20. 임지룡 역,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2004.
21. 맹주역 외, 《베이직 중국어》, 동양북스, 2013.
22. 박병선, <한국어 지시관형사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과학》 제28권, 2004.
23. 박영환, 《지시어의 의미 기능》, 한남대학교출판부, 1991.
24. 스코트(Scott), <'this'과 'that'의 절차적 분석>, 《언어학연구》 제21권, 2009.
25. 스퍼버·윌슨(Sperber, D. and Wilson), 《관련성》, 옥스포드: 블랙웰, 1986.
26. 沈建華, 《漢語口語習慣用語教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3.
27. 윌슨·스퍼버(Wilson, D and Sperber), <언어형식과 관련성>, 《언어》 제90권, 1993.
28. 徐丹, <淺談“這”、“那”的不對稱性>, 《中國語文》 第2期, 1998.
29. 楊寄洲, 《北京語言漢語教程 入門》, 商務印書館, 2007.
30. 유경민, <지시어 '저'의 제한적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제16권, 2005.

<Abstract>

For pragmatic study Sperber and Wilson Relevance Theory has provided a brand-new theoretic framework and perspective. It has laid a foundation for cognitive pragmatics and shifted the key point of pragmatics from utterance production to utterance comprehension. According to Relevance Theory, utterance comprehension involves two processes: decoding and inference, and it requires two basic tools: representation and computation. On this basis, relevance theorists distinguish two basic types of encoded meaning: conceptual meaning, which is associated with representation, and procedural meaning, which is associated with computation. ‘zhe’ and ‘na’ is one of the most universally-used words in modern Chinese. Based on this Relevance Theory, a review of the ‘zhe’ in Chinese.

Key Words : 지시어(demonstrative), 這(zhe),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가개념적 의미(pro-conceptual meaning), 발화의 이해 과정(understanding process of utterance)